주 제:	"유혹을 이기려면?"	"사순 제 1 주일" (다해)	2007 년 2 월 25 일
복음 묵상:	루가 4,1-13	신명 26,4-10	로마 10,8-13

복음은 예수님께서 40 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이 40 이란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피해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으셨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 일의 유혹기간은 예수님의 한평생을 말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한평생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유혹을 당하셨고, 그 유혹과 끊임없이 싸웠고 결국엔 이겨내셨음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면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나약함을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나약한 존재였지만 사랑이란 칼과, 기도라는 방패를 들고 악의 세력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이기신 분이 아니라 바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위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 너무도 연약한 나, 바로 나를 위해, 꿈과 희망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광야처럼 삭막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유혹들, 나의 약함과 모자람에 당당히 맞서며, 주님 부활의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군종 노중래 신부님 강론중에서)

성가대 소식

1. 이제 **부활절이 6 주**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2. 금주 영성체 특송은 가톨릭 성가집 127 번 "**십자가 바라보며**"을 할 것입니다.
3. **기도 요청**
   - **홍 아마데우스 수녀님** 2/22 부터 3/9 까지 피정에 참석하십니다. 피정 중에 주님과 좋은 만남 있으신 후에 돌아 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은순 아녜스** 자매님의 친정어머님이 쇼크로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하시어 건강히 가족품에 돌아오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병문 바오로** 형제님 3 월 17 일 한국에서 화촉을 밝힐 예정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출발 하는 형제님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5 월말에 돌아올 예정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안 형제님을 찾아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여행 중에 주님이 함께하시어 건강히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축하 입선. **김효식 필립보네리 형제님의 막내 Stephen Kim 군이 1 월과 2 월 UC– Davis Mondavi 와 Prometheus Symphony Felix Khuner Solo Concert Competition** 에서 바이올린 부분에서 **각각 1 등을** 하였습니다. 3 월중에, 3 번에 걸쳐 Orchestra 와 Solo Recital 을 할 예정입니다. 날자와 시간이 확정되는대로 초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prometheussymphony.or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중에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요.

4. **개인홈피에 화답송과 부활 미사곡이** NWC 파일로 실려있으니,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도 개인이 연습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홈피주소는; **http://home.comcast.net/~kimjiman/** 입니다.

5. 알림; 가족들의 소식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재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kimjiman@comcast.net)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마음에 있다" (로마 10,8)
"The word is near you,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복음 [루가 12,35-40]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 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사십 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지셨다. 그 때에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꾀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 주며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 갔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응?"

– 앤디 앤드루스의《용서에 관한 짧은 필름》중에서 –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먼저
용서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내 안의 화가 녹아 내리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집니다.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상대방보다 먼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길이며
또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순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고,
내가 자유로워져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